

지역성이라는 관점에서의 남도문화와 주거건축

최 명 규(호남대 교수)

남도문화와 주거건축을 지역성이라는 관점에서 비교·분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역성에 대한 개념정의와 함께 남도문화에 대한 개념정의와 그 특성에 관해 고찰해 보는 것이 필요하며, 나아가 주거건축의 의미 및 형성과정을 분명히 해야 '남도문화'와 '주거건축'의 관계가 정립될 것이다.

건축에서 지역성을 논한다는 것은 건축이 사회, 문화 등을 비추는 사회의 거울이라고 봤을 때 지역이 갖고 있는 무형의 것들을 건축에서 무엇인가 담아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우리가 지역성을 논하는 것도 결국은 모더니즘이 갖고 있는 세계화 건축에 대한 반발로서 전통의 계승 면에서 찾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지역성을 보는 관점은 어느 곳이나 그 땅에 그냥 생긴 것이 아닌 과거 역사의 발자취가 남겨져 있고 그 의미가 건축에 담겨지고 표출된 것들이 지역성 있는 건축이 아닌가 하는데 있다.

문화란 한 민족이나 사회의 전반적인 삶의 모습을 말하므로 남도문화란 남도인이 살아온 삶의 모습 전반을 지칭한다 하겠다. 문화를 우리에게 보다 쉽게 다가오는 개념으로 설명한다면, 집단이 무의식적으로 공유하는 '우리 식'에서의 '식'이 문화에 가장 가까운 일상용어인 것이다. 한편 주거란 가족생활의 근거지로서 개인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행위까지도 포함하는 우리의 주생활을 담는 그릇으로서 삶의 질을 성취하기 위해 만들어 온 가장 기본적인 환경으로서 인류가 가장 필요로 하는 생활장소인 동시에 건축문화의 시조라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주생활은 고유한 가족형태의 유지와 가족간의 친화력을 다지는 공간매체로서 뿐만 아니라, 생계유지의 방법이나 사회활동의 종류에 따른 고유한 생활양식으로 형성되어 있다. 문화권마다 다른 주생활의 양식은 문화적 규범이나 가치에 의해 형성되었기 때문에 생활양식에 어긋나는 주거는 가족생활의 유지나 발전을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최선의 주거형태는 그 속에 들어가 살 거주자의 삶에 가장 적합하게 고안되어야만 할 것이다. 예전의 전통적 토속 주거에서는 주거형태와 삶이 하나의 덩어리일 수밖에 없었으나 오늘날의 아파트와 같은 집합주거가 대량생산되는 구조 속에서는 거주자가 더 이상 주거의 생산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거주자는 수동적 입장에 처하게 되었고, 모든 것을 건축가에게 내맡기게 됨으로써 우리의 삶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는 주거를 만들어내고 있는 실정이다.

주거공간은 생활상의 요구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으나, 그 외에도 주거공간을 형성시키는 힘은 있다. 그 하나로 사회적인 환경조건의 영향은 큰 것이다. 또 하나는 건축을 만드는 기술의 진보도 주거공간 형성에 큰 영향을 준다. 생활의 요구가 주거공간을 안에서 변화시키는 힘이라고 한다면 사회환경과 기술은 주거공간을 밖에서 변화시키는 힘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한편 "문화"와 "문화의 산물"을 혼동하여 사용한다는 점이나, 전통문화와 현대문

화로 단절하여 보려는 이원론적인 사고를 갖고 있다는 점, 그리고 부분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는 점 등에서 우리는 문화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

특히 남도문화는 부분문화가 될 수 있으며, 주택이 살기 불편한 것은 그것을 만든 사람과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간의 부분문화가 서로 다름을 인식하지 못하고 주택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신교수가 발표한 논문 '남도문화와 주거'에서는 건축활동이란 문화적 측면에서 이해되어야 하며, 아울러 남도문화란 한국의 문화권의 하위체계로 이해해야 한다는 전제아래 남도문화의 특성 속에서 주거를 이해하며, 주거의 시대적 변화과정에 대한 이해를 통해 남도주거의 미래를 전망할 수 있는 자료를 축적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전라도지방을 중심으로 하는 남도문화의 특성을 서민성, 유연성·유리한 선과 여백의 미, 그리고 개방성과 융통성으로 규정하였다. 아울러 남도의 주거건축을 먼저 조선시대의 주거건축을 중심으로 중상류층 주택(반가)과 서민주택(민가)으로 구분하여 특징을 살펴보고 아울러 배치, 공간구성, 평면형식, 재료 등의 측면에서 개방성, 서민성, 포용성 등의 특징을 찾아내고 남도문화와의 일치를 주장하고 있다. 좀 더 부연하자면 이 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 따뜻하기 때문에 대청을 중심으로 하는 다소 개방적인 평면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점과 놀이문화가 발달되었기 때문에 누정문화가 많이 나타났으며, 아울러 다소 간사이가 다소 높고 넓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생활이 여유롭고 풍요로웠기 때문에 생활을 담는 건축에 공간을 더욱 크게 하고 더 좋게 한 결과로 생각됩니다. 또한 근·현대의 남도의 주거건축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나 남도지방만의 주거건축의 특성이라고 하기에는 언급된 자료나 내용이 다소 부족하다고 하겠다. 다소 욕심을 부린다면 근세 개화기 이후의 남도의 주거건축을 이장우 가옥(양림동)이나 배유지목사 저택(양림동)과 같은 것에서부터 1910년 한일합방 이후의 양식건축과 일식건축의 출현에 따른 시기에서의 최승효(양림동)가옥, 현준호(학동)가옥 등과 같은 전통식 한옥주택, 북동 천주교회 사제관(북동)이나 선교사사택(양림동) 등과 같은 서양식 주택, 오용(장동)가옥, 장현섭(동명동)가옥, 송인석(사구동)가옥, 최귀실(블로동)가옥 등과 같은 일본식 주택 등에 대한 보다 세밀한 분석과 함께, 그리고 해방 이후 도시화과정에 따른 10년주기별 주거의 특징 등에 관한 분석이 이루어졌다면 남도의 주거건축에서의 지역성을 찾아보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물론 문화란 앞에서 언급한 바와 마찬가지로 한 민족이나 사회의 전반적인 삶의 모습 전반을 지칭한다. 오늘날 세계화의 슬로건 아래 정보의 교류속도가 빨라지고, 교통이 발달함에 따라 지역이 나름대로 자신의 가치를 갖는다는 것은 어렵게 되었다. 이에 따라 지역성이란 관점에서 남도문화의 특성내지는 다른 지역과의 차별성을 찾아내기가 매우 어려운 시점에서 그래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남도의 가치와 삶의 방법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도입을 통해 남도문화의 정체성과 정위성을 확보함으로써 남도지역의 주거문화 발전에 기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남도지방의 주거문화에 대한 연구가 다 방면에 걸쳐서 보다 깊고 넓게,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만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